

국제전문인력 양성정책과 지역전문가 : 지역학의 목적, 기반, 접근

엄 구 호*

.....

올해부터 시작된 국제전문인력 양성정책에서 지역전문가 양성은 국익극대화의 목적을 위해, 사회과학 중심의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학제적 접근을 하는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특성은 일견해 보면 최근 국제정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쟁점을 갖는다. 대학 교육의 국익 공헌 필요성은 어느 국가에서나 요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학의 순수 분과학문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오늘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익의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이론을 지향하는 사회과학과 어떤 특정 지역, 국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연구는 서로 통합되기 어렵다. 그리고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다양한 사회과학, 인문학, 언어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는 한 데, 이러한 다양한 분과학문이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학제간 교육 결과와 구체적 연구주제와 방법론의 선택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어서 과연 진정한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를 갖는 사람이 많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의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의 이론적, 현실적 쟁점들의 해결책을 모색해서 지역학 교육과 연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

1. 서 론

교육부는 1996년 11월 8일,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등 9개 대학을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대학원 수준의 통상 전문인력, 국제협력 전문인력,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기로 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1995년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개혁위원회의 “국제관계 전문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학 대학원 교수

인력 양성 방안"과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전문가 육성 방안"을 근거로 이루어 졌으며, 교육부는 5년간, 매년 200억원씩 1,000억원을 위의 9개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연 400명 정도의 국제협력, 통상, 지역연구 분야의 석사들이 배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광범한 공감대가 있었다. 우선 국제환경 변화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한국이 생존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 해외투자, 국제경영 분야 등의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세계질서가 다중심화하면서 국제문제의 해결이 기존의 쌍방 차원에서 다자간 차원으로 복잡해졌다. 이에 더하여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NGO등 민간차원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국제협상 전문가와 국제협력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세계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된 점도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고시켰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전문인력의 필요성은 WTO등의 통상협상, 그리고 북한 경수로 문제 등의 다자간 정치 협상에서 우리의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능력의 부족을 공감하면서 특히 절실해졌다. 따라서 국제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는 국제협력전문가와 통상전문가 양성으로 결정되었었다. 그러나 국제학 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연구의 발전은 필수불가결하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최종안에서는 국제협력전문가, 통상전문가, 지역전문가 등 3개의 분야로 결정이 되었다. <표1> 9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의 현황에서 보듯이 대부분 국제전문인력 양성 대학원에서도 국제학과 지역연구가 상호 교차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나날히 복잡해지는 국제정치 환경과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국익 극대화가 목적인 정책학적 패러다임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표1>의 9개 대학의 설치학과 및 전공항목에서 보면 9개 대학이 3분야 중 어느 한 분야로 특성화되었다기 보다는 대부분 3분야 양성 프로그램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지역학으로 특성화되었는 경우에도 국제협력이나 통상의 문제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 9개 대학원의 지역학에 대한 인식이 특정 지역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외교나 통상문제에서 잘 활용되어 국익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지역연구가 대상국에 대한 인문학적 기반 위에서 사실적 지식, 언어 능력, 현지 경험 등을 강조했던 반면에 국제전문인력의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등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 지역연구를 강조한다. 이는 <표2>의 9개 국제전문인력 특성화 대학원 전임교수의 박사학위 분포와 <표3>의 9개 국제전문인력 특성화 대학원의 개설과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표2>에서 보면 9개 국제전문인력 특성화 대학원 전임교수 61명중 약 8할이 사회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미국의 경우

〈표 1〉 9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의 현황

대학명	대학원 명칭	설치학과 및 전공	학생수 (입학인원)	전임 교원수
고 려 대	국 제 대 학 원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지역학과(북미전공, 일본전공, 중국전공, 러시아전공, 동남아시아전공)	80	6 (-)
서 울 대	국 제 지 역 원	통상협상전공, 국제협력전공, 지역연구전공(미국지역연구전공, 중국지역연구전공, 서유럽지역연구전공, 일본지역연구전공, 동구·러시아지역연구전공, 동남아지역연구전공, 중남미지역연구전공)	50	3 (-)
연 세 대	국 제 학 대 학 원	지역학과(일본전공, 중국전공, 미국전공), 국제학과	34	7 (-)
이 화 여 대	국 제 대 학 원	국제학과(국제통상전공 및 국제협력전공)	47	6 (-)
한 국 의 대	국 제 지 역 대 학 원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동남·남아시아학과, 중동·아프리카학과, 러시아·동유럽학과, 유럽연합학과, 북미학과, 중남미학과	59	9 (4)
경 회 대	아 태 국 제 대 학 원	국제통상학과, 국제경영학과, 지역학과(중남미전공)	20	3 (-)
서 강 대	국 제 대 학 원	국제통상학과, 국제협력학과, 국제법학과	30	6 (1)
중 앙 대	국 제 대 학 원	국제지역학과(중국전공, 호주전공, 중남미전공), 통상협력학과, 국제협력학과	43	2 (-)
한 양 대	아 태 지 역 학 대 학 원	중국학과, 러시아학과, 미국학과, 일본학과	50	5 (-)
계			413	47(6)

* 이 표는 1997년 6월 30일 현재임.

* 전임교원수의 ()안은 외국인 수

<표4>에서 보듯이 지역전문가 중 사회과학 분야는 20.6%에 불과한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또한 <표3>에서 보면 9개 특성화 대학원이 1997학년도 1, 2학기에 개설한 총 280개 과목 중에서 인문학 관련과목의 수는 63과목으로 전체의 22.5%에 불과한 반면에 사회과학 관련 과목의 수는 방법론을 제외하고도 184과목으로 전체의 65.7%나 되는 것에서 사회과학 중심의 지역학 교육임을 잘 알 수 있다. 셋째, 두 번째 특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이 모두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표3>에서 보듯이 9개 대학원은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연구 대상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연구대상지역의 보다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과학과 방법론 중심의 공통 기초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그 수가 219과목으로 전체의 78.2%나 된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현재 국제전문인력 양성정책에서 지역전문가 양성은 국익극대화의 목적을 위해, 사회과학 중심의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학제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9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 전임교수의 박사학위 분포

박 사 학 위		명 수	비 율 (%)
사 회 과학 48명(78.7%)	경 제 학	17	27.9
	정 치 학	10	16.4
	법 학	8	13.1
	경 영 학	6	9.8
	행 정 학	2	3.3
	사 회 학	2	3.3
	정 치 경 제 학	2	3.3
	지 역 학	1	1.6
인 문 학 13명(21.3%)	어 문 학	6	9.8
	역 사 학	4	6.6
	인 류 학	2	3.3
	철 학	1	1.6
합 계		61*	100.0

* 각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및 일부 겸임교수도 포함되었음.

〈표 3〉 9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의 개설 과목

공통, 기초과목	지역 전문 과 목														합계														
	사회과학		법		종		중국		일본		동아시아		동남아			미국(북미)		유럽		러시아, 동구		아태(인포)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경	치	법	문	정	경	인	정	경	인	정	경	인	정		경	인	정	경	인	정	경	인	정	경	인	정	경	인
	계	영	법	학	치	영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학
교과대	7	11	3	2	0	0	1	1	2	0	0	2	1	0	1	1	2	0	1	1	2	0	1	1	0	0	0	0	46
서울대	2	5	2	1	0	2	1	0	3	0	1	1	2	0	0	0	3	0	1	0	2	0	1	1	2	0	1	0	36
연세대	9	12	0	2	1	1	0	0	4	0	1	0	2	1	3	1	9	1	1	0	0	0	1	0	0	1	1	0	50
이 대	5	6	2	4	0	1																							18
위 대	1	1	1	1	1	4	1	1	1	0	1	1	0	1	1	1	1	1	0	1	1	0	1	1	1	1	1	1	35
경희대	0	7	1	4	0	2																							16
서강대	5	4	6	0	3	0	0	0	0	0.5																			22
중앙대		8	2	0	0	1	0	1	0	1					0	1	0	0											40
한양대	3	3	0	1	0	0	3	2	3	0	3	3	0																40
합계	34	57	17	15	5	11	6	5	13	1.5	6	7	9	1.5	4	3	10	1	2	2	6	0	9	5	7	0	3	3	280
합계	108	15	5	11	25.5	23.5	18	10	21	11	18	4	3	7	3	3	18	4	3	7	280	280	7	280					

※ 1997학년도 1,2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한국학관련 과목을 제외하고 분류한 것임.

이상의 세 가지 특성은 일견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쟁점을 갖는다. 대학 교육의 국익 공헌 필요성은 어느 국가에서나 요구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학의 순수 분과학문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또한 오늘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국익의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이론을 지향하는 사회과학과 어떤 특정 지역, 국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연구는 서로 통합되기 어렵다. 그리고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다양한 사회과학, 인문학, 언어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접근을 시도하고 있기는 한 데, 이러한 다양한 분과학문의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학제간 교육 결과와 구체적인 연구주제와 방법론의 선택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어서 과연 진정한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론을 갖는 사람이 많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의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의 이론적, 현실적 쟁점들의 해결책을 모색해서 지역학 교육과 연구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2. 파머론: 국익 추구 대 순수학문적 추구

지역연구의 초점이 연구대상 지역에 대한 자국의 국익 차원에서의 상대적 가치에 맞춰져야 하는지 또는 순수 학술적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지는 선진국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보면, 유럽의 경우 지역연구의 초점이 정책의 이익, 특히 한 국가나 지역에 관한 효과적인 정치적 또는 경제적 전략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미국의 경우 지역학 프로그램을 민간 대학에 많이 세워 학계를 통해 지역학이 발전해왔다.

이처럼 지역연구 및 교육에 관한 상반된 입장은 서로 종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역할, 지역연구와 교육의 주체, 그리고 순수학문으로서의 지역연구 발전 가능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 대학은 교육의 국제화와 대학의 국익 공헌이라는 동시 발생적이지만 서로 상반되는 운동 법칙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지만 2차대전 이후 국익 추구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선진국의 경우 GDP의 2내지 3%가 R & D에 쓰이고 이러한 지출의 15 내지 25%가 대학에 집중되는 상황(Kerr, 1991, p.23)에서 종래의 능력 있는 공무원의 양성이나 기술자의 양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제적 감각을 강조하는 MBA과정이나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관심을 갖는데서 이를 감지할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전과 달

리 국가간의 경제적 또는 군사적 경쟁에 있어 대학이 정책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명확히 나타나는데, 시장이 점점 세계화하고 시장에서의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하면서 인적 자원이 물리적 자원 이상으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경제의 국제화가 대학의 국가주의화 현상을 결과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것이다.

교육의 국제화는 대학이 이념적, 정치적 위협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의 장애 없는 확산, 자유로운 학자와 학생의 교류, 보편적 커리큘럼의 공유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학이 정부나 기업이 지원하는 국익 추구적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교육을 한다면 이는 교육의 국제화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대학 교육에서의 국익 강화와 국제화는 서로 상반된다. 학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인 반면에 국익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은 사고와 신념에 의존하지만 국익은 압력과 통제에 의존한다. 대학은 이 양자의 어느 한 편에만 설 수는 없으며, 중간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즉 합리적인 정부 지도하에 국제화의 추구가 대학의 역할인 것이다. 지역연구와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대학이 주도적으로 순수 학문적 차원에서 지역연구를 주도하고, 여기서 생기는 미비점을 정부가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이 지역연구를 주도하여 순수학문적 접근을 하는 경우의 장,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연구와 교육을 연계할 수 있다. 둘째, 광범한 학문 특히 인문학이 지역연구로 들어오게 된다. 셋째, 정부가 정한 국익에 봉사하도록 하는 정부의 압력으로부터 순수 기초연구를 분리할 수 있다. 넷째, 지역연구가 특정 연구소에 종속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수학문으로서의 지역연구 성장이 용이하다. 반면에 대학주도 순수학문적 지역연구와 교육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는 단점들이 있다. 첫째, 연구의 정향이 자국의 국익의 시각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연구 초점과 스타일은 정책결정자의 요구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국익에는 중요해도 연구대상이 약소국인 경우 대학이 교수직을 만들 보장이 없다. 셋째, 대학이 배출한 전문가들이 지역연구에만 헌신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시간과 정보의 제약이 크다.

교육부의 국제전문인력 양성정책은 이러한 장단점이 어느 정도 잘 보완된 지역연구와 교육체계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되, 전술했듯이 복잡한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익에 초점을 맞추도록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은 물론 대학내 다른 학과에도 지역전문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현재 우리의 대학 여건에서 비전략 지역을 담당할 교수를 충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될 때 지역연구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불가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연구에서 국익 극대화적 입장만 강조될 것이다.

J. Derrida가 즐겨 쓰는 말로 '파머콘(pharmacon)'이라는 그리스어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약도 되지만 독성도 품고 있다는 극단적인 이중적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러한 이중적 의미 때문에 '파머콘'에는 이념형적인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연구는 현재 이러한 '파머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연구와 교육이 어떤 독성을 갖고 있다면 이는 순수하게 지역연구를 바라보는 학문적 열의의 부족에 기인한다. 첫째, 지역연구가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원(information source)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여 지역연구를 국제관계론이나 국제경영론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연구를 하나의 학문으로 보기보다는 외교전략 수립이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정보공급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도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과 국제협력, 통상전공을 교차시킨 체계를 갖고 있는 현재의 9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이 배출하고자 하는 지역전문가는 순수한 의미의 지역전문가라기 보다는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한 해박한 사실적 지식 및 정보를 갖춘 외교전문가 또는 통상전문가라는 인상이 짙은 것이다. 둘째, 지역연구를 사회과학의 보편 이론 추구의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얼핏보아 지역연구인 듯한 연구가 사실은 특정한 전문분야의 이론적 검증에 위한 사례로만 이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문제는 3장에서 좀 더 논의될 것이다.

지역연구가 이러한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것이 바람직한 지역관이 다. 미국의 경우 2차대전중 전시의 필요성에 의해 지역연구가 활성화되었는데, 이때의 지역관은 세계지역(world area)으로서의 지역관이였다. 즉 세계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독립된 연구영역이 된다는 배려아래 지역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한 지역 구분은 원칙적으로 소련, 극동,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근동, 동구, 북구, 서구,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시대 세계질서의 유산이라 볼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자의적이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이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다루어지지만 미얀마는 동남아와 함께 연구된다든지, 아프리카를 사하라를 경계로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지역내 국가들에 관한 연구에서도 특정 몇몇 국가만 많은 관심을 받는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남아시아에서는 인도, 남미에서는 멕시코와 브라질, 아프리카에서는 케냐와 나이지리아에만 지역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9개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원의 전공 지역도 이러한 흐름에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전략국은 국가로 나머지는 세계지역의 구분을 하고 있다. 지역은 국가일 수도 있고, 문화지역일 수도 있고 생태지역일 수도 있고, 이들의 부분적 종합일 수도 있다. 국익 차원의 단순한 지역 구획의 지역관에서 벗어나 세계인식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지역연구가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공간, 시간이 종합되는 지역관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역연구가 순수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연구가 지금 당장 국익에 기초한 정책학적 연구와 단호히 구별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학문으로의 발전 가능성 모색과 노력이 3장에서 논의될 지역연구의 분과학문으로의 성립가능성, 그리고 4장에서 논의될 다학문적 연구의 구체적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제시에 구체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3.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사실적 지식 대 일반이론

일반적으로 지역전문가를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은 그가 한 지역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 그 지역에 대한 직접적 접촉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가, 현지어를 잘 하는가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9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도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광범한 분과학문에서 지역에 관련된 과목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어와 현지연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고도의 전문화와 국가에 대한 사실적 지식의 조합, 현지 방문의 반복, 높은 언어능력 등의 강조가 결과한 것이 지역연구의 학문화(—ologizing) 경향이다. 예를 들어 일본학(Japanology), 중국학(Sinology), 소련학(Sovietology) 등의 용어가 이미 낯설지 않다. 이러한 학문화 전통은 현지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역의 전문가에게서 가장 현저하며, 아마추어와 진정한 전문가를 구별할 필요성의 결과이다.

이처럼 지역연구의 학문화는 특정 지역에 대한 언어 능력과 깊은 이해를 요구하므로 지역전문가의 범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우며, 지역학과 다른 다양한 분과학문과의 상호작용의 이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학문화 현상은 지역연구와 관련된 여러 분과학문의 중심을 사회과학에서 언어능력과 현지에 대한 사실적 지식이 강조되고, 관심 주제의 대체가능성이 큰 인문학으로 기울게 한다. 따라서 학문화는 분석기술의 상대적 우월성이 장점인 사회과학의 엄격한 과학적 방법, 예를 들어 계량경제학(econometrics), 인구론(demography), 수학적 정치 모형화(political modeling) 등을 지역연구에서 배제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었다.

연구 대상국가를 실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적 지식은 필수적이다. 이는 타국을 이해함에 있어 자국 문화의 단순한 투영과 다른 국가에 대한 적절치 않은 시각으로부터 생기는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남미연구에 종속이라는 남미의 개념을 도입하듯이 토착적 개념의 적용은 특정 국가의 깊은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적 지식의 강조와 토착적 개념들 의존은 연구관 보편적이고 어떤 특정 사회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반 사회과학자들과 지역전문가를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사회과학에서는 규칙적 법칙성을 인식하여 일반이론을 창출하고자 노력한다. 사회

과학 분야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과학자들, 예를 들어 비교정치학, 비교사회학, 비교행정론, 비교경제론 등은 기본적으로는 적실한 이론적 토대와 엄격한 방법론 하에서 비교를 통한 지역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여 그 이론 자체의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 지역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내실 있는 비교를 위해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기는 하나 대부분 구미에서 공부한 사회과학자들로서는 언어 또는 현지 감각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곤 한다.

따라서 현지에 관한 사실적 지식이 어떻게 사회과학의 일반적 분석틀로 통합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통합을 위해서는 양 접근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를 통해 지역간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이론을 창출하려는 노력보다는 지역간 차이에 중요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굳건한 이론적 토대를 가진 분석틀 또는 접근법에 얽매인 비교는 어떤 지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낳을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프로크루스테스¹⁾의 침대를 연상시키는 지역연구가 최근에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엄격하고 정교화된 방법론만을 강조하는 최근의 학계 풍토에도 영향이 큰 듯하다.

지역연구자와 비교론자의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소련 및 동구의 몰락이후 등장하고 있는 소위 '체제이행론(transitology)'이다. 탈이념화, 시장화, 민주화라는 공통적 세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구소련은 더 이상 독특한 정치체제 또는 경제체제가 아니라 남미나 남유럽과 마찬가지로 체제전환시의 공통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구소련도 이제는 순수한 비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체제이행론의 요지이다. 체제이행론은 사회과학의 표준적 방법론을 주장하는 비교론자들(comparativists)과 구소련의 언어와 특정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지역전문가들(area specialists) 사이에 큰 논쟁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구의 민주화 경로와 남미와 남유럽의 그것을 비교 연구한 P. C. Schmitter와 T. L. Karl의 연구에 대한 V. Bunce의 격렬한 비판이다. 'Slavic Review'의 4차례에 걸친 양쪽의 논쟁을 보고 필자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학적 지역연구 접근이 주류가 되어 가는 상황이지만, 현상의 깊은 이해를 위한 역사, 문학, 철학, 언어 등 인문학적 접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가 지역연구를 위한 분석틀의 설정 및 분석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표3>의 9개 국제전문인력 특성화 대학원의 개설과목에서 보면 지역전공과목의 경우에서는 인문학 관련 과목의 비중이 사회과학 관련과목의 그것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개념적 지식과 방법론의 학습을 강조하는 공통기초과목의 경우에는

1) 작은 사람을 침대에 놓혀, 키 큰 사람은 다리를 자르고, 작은 사람은 잡아 늘였다는 고대 그리스의 강도

219과목 중에서 인문학 관련과목은 5과목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그간 지역연구에서 소홀히 대왔던 미시경제학적 기반을 가진 합리적 선택이론 접근, 게임이론적 접근과 문화인류학적 기반을 가진 다양한 접근법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방법론의 엄격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연구가 지향하는 지역간 문화적 특수성을 조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게임이론적 접근법은 그 지역이 어떤 정치적 차이를 보이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지역연구는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문화는 제도에 의해 구별된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를 제공하며, 제도가 어떻게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집합적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문화는 또한 역사와 신념에 의해서도 구별된다. 불완전정보하의 의사결정이론은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즉, 의사결정이론은 역사와 세계관이 개개인의 선택과 집합적 결과를 형성하는 방식에 관한 통찰력을 주므로 해서 문화간 차이를 조사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미시경제학적 기반을 가진 또 다른 접근인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실적 지식과 과학적 분석의 관계를 규명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다. 평화적 행위를 지지하는 것은 신념이라고 주장함에 의해 신념과 행태사이의 모순 해결을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반에서 시도한 E. Colson의 연구는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지역연구에 있어서도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의 논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해석학적 토대를 가진 문화인류학적 접근도 지역연구에 있어서 이론과 사실적 지식이 상호보완, 통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각이 될 것이다.

셋째, 사실적 지식과 사회과학에 관한 개념적 지식과 방법론의 이러한 결합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에 있어 학생들은 시간과 돈의 제약 때문에 지역의 사실적 지식에 관한 과목보다는 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과목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공식적 목표에 사실적 지식 축적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각 학생의 전공 분과학문 관련 교육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학문의 과학성에 초점을 두는 대학원 전통 때문에 각기의 주요 분과학문과 관계없는 과목을 듣는 학생은 실제로는 거의 없다. 우리의 경우도 <표3>의 9개 국제전문인력 특성화 대학원의 개설과목에서 보면 전체 280개 개설 과목 중에서 개념적 이론이나 방법론을 교육하는 공통기초과목의 수가 219과목으로 전체의 78.2%나 된다. 그리고 개설된 공통기초과목이 지역학과의 명확한 상호작용의 틀 없이 나열식으로 개설된 감이 있다. 또한 지역연구는 다양한 분과학문의 섭렵을 필수로 하고 있으나, 국제전문인력 특성화 대학원생의 경우 대개는 하나의 자기 전공을 갖기를 원하고, 과목도 주로 자기 전공에 대해서만 들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년만에 지역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대개의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들이 다른 일반 대학원에 비해 많은 학점을 이수하게는 되어 있으나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3년 정도로 늘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전문가는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정확히 알려주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을 아직은 계속해야 할 것 같다. 많은 지역의 경우 정보의 접근과 언어는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적 지식과 각 분과학문의 통합이 지역연구의 학문적 기반임은 명확하나, 아직 그 구체적 틀은 연구의 대상이다. 사회과학적 접근과 인문학적 접근사이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념적 지식에 관한 과목인 여러 분과학문이 지역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통기초과목을 재정리하여 강의하여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지역연구에서 소홀이 다루었던 미시경제학적 기반을 가진 수학기론, 그리고 해석학적 기반을 가진 문화이론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한다.

4. 시너지: 보편으로의 분해와 특수로의 통합

지역학을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현상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때, 지역학은 연구 지역은 좁지만 광범한 분과학문의 협력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3장에서 논의했듯이 지역연구의 경향은 점점 전문적인 분과학문 지식의 강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자와 학생의 연구 관심이 대단히 광범하고 섭렵해야 할 과목이 과중하기 때문에 지역연구가 지향하는 학제간 연구보다는 실제에 있어서는 지역연구가 여러 하위분과학문(subdisciplines)들의 단순 집합체인 것이 현실일 수 있다.

<표4>는 미국의 지역전문가들의 학문별 분포를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지역학 프로그램의 교수중 자신 연구의 25%이상을 지역연구에 헌신하는 연구자들의 수가 집계된 것이다.

<표 4>에서 보면 미국의 지역전문가 양성 대학 프로그램 교수들의 전공 학문은 매우 다양해서 지역연구가 다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어문학, 역사학, 인류학, 정치학이 가장 중심 학문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특수성 있는 내용보다 보편적 원리에 초점을 두는 분과학문일수록 지역연구 분야에 잘 흡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지심리학 분야가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심리학이나 계량분석이 강조되는 경제학과 사회학은 인류학이나 정치학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다. 또한 구체적 지역과 연결하여 보면, 어문학이 대부분 지역에서 비율이 큰 데 반해, 역사학은 동아시아와 동구의 연구에서 비율이 크다. 경제학은 아프리카, 중동 등의 지역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크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학문에 비해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리고 인류학은 개발도상국 연구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크다.

〈표 4〉 미국의 지역전문가들의 학문별 분포

분과 학문	아프 리카	동 아시아	동구	중앙 아시아	남미	중동	남 아시아	동남 아시아	평균
역 사 학	5.0	21.9	16.7	20.0	10.0	17.6	8.0	4.3	12.9
언 어 , 문 학	20.0	22.0	29.5	39.7	40.0	25.0	31.3	39.0	30.8
예 술	8.0	9.7	3.9	0.0	4.5	4.7	8.0	11.5	6.3
종 교 , 철 학	3.2	0.0	5.1	2.0	0.0	0.0	5.3	8.7	3.0
지 역 연 구	0.0	2.0	0.4	4.9	40.0	0.9	10.5	0.0	7.3
경 제 학	13.6	8.0	5.9	3.4	0.0	9.1	2.9	5.9	6.1
인 류 학	19.9	15.0	5.5	1.9	0.0	17.0	6.5	8.0	9.2
사 회 학	5.2	3.0	3.8	2.0	0.0	8.0	2.4	2.3	3.3
심 리 학	0.0	0.0	0.4	0.0	0.0	0.5	0.0	0.7	0.2
고 고 학	0.0	0.0	0.0	0.0	0.0	0.0	3.5	0.7	0.5
지 리 학	5.2	5.0	1.3	3.9	0.0	2.7	4.1	2.4	3.0
정 치 학	8.9	8.0	8.9	10.8	0.0	8.2	7.1	10.3	7.8
응 용 분 야	4.0	7.6	10.8	0.0	14.1	4.1	6.0	7.3	6.7
명 수	100	237	204	15	219	170	122	47	

출처 : Lambert, Richard D. "Blurring the Disciplinary Boundaries :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3, No. 6, July/August, 1990, pp.726.

이처럼 지역연구는 지역별, 분과학문별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역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동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학제간(interdisciplinary) 접근이다.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해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진 개별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공통의 지적 노력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초학문적(transdisciplinary) 접근이다. 특정 국가나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자는 자기의 학문배경 이외의 여타 분과학문의 다양한 주제도 다루게

된다. 특정 지역 전문가가 그 나라의 정당사, 경제개혁, 민족문제, 언어정책 등 여러 학문 분야의 저술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초학문적 접근이 학제간 접근과 완전히 분리되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학제간 연구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비학문적(nondisciplinary) 접근이다. 기존 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이 특수한 문화를 가진 개별 국가를 연구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국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에서 발생된 여러 학문의 발전된 개념 또는 방법론의 상위구조가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역연구가 이루어 질 때 학제간 또는 초학문적 접근으로 연구 주제가 선정되어도 실제로는 개별연구자 각자의 학문적 배경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일반인이 이해하는 타학문의 주제로 보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는 하위학문적(subdisciplinary) 접근이다.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연구자들은 각자의 학문적 배경의 전범위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어떤 분과학문, 특히 사회과학의 세부전공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본다.

지역연구와 교육이 학제간 접근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초학문적 접근의 경우가 가장 많다. 지역학 대학원 교수의 경우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과학문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연구기관도 다양한 분과학문 전공의 연구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나, 한 주제에 관해 공동으로 연구하는 학제적 접근, 즉 이들 전공간의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자신의 전공 분과학문 내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커리큘럼 상에 다양한 분과학문의 과목들과 지역관련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으나, 이들 과목간의 결합에 의한 지역의 총체적 이해는 학생들의 몫으로 남는 것이 보통이다. Lambert 등의 설문조사(Lambert et al., 1984)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지역전문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지역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의 6.4%만이 자신 전공 분과학문 외의 과목들이다. 그리고 수강하는 과목 중에서 75%는 전공 분과학문과 관련된 과목이고 지역에 관련된 과목은 25%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개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구별되는 것이 언어 교육의 강조에 불과한 경우도 많은 것이다.

위에 언급한 상황은 사실 지역연구가 독자적인 전문성과 독자적인 방법론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현재의 지역연구에 있어서는 각 분과학문이 참여하여도 각 분야의 전문성이 상실되지 않은 채 각기 독립적으로 지역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상의 공통성은 있어도 방법의 종합성이 반드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각 분과학문간의 대화를 확대하면서도 연구자체는 여전히 자신의 전공분야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종합 자체의 전망은 개인에 의해 준비되는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개별 지역연구자들의 연구가 분과학문간 경계를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학과간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학제간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로는 비학문적 접근이라고 보아야 할 때가 많다. 대개 이런 경우에 연구자는 개념과 방법론의 상

위구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연구 주제를 선택할 경우가 많고, 또한 채택한 개념과 방법론이 그 대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에 한정되어 부적절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연구가 전형적인 학제간 접근이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점점 세분화, 전문화해 가는 학문의 발전 경향과 관련이 깊다. 각 분과학문 내에서도 많은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져 어떤 경우에는 같은 분과학문내에서도 서로 학문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행정학내의 도시행정 전공자라면 지역연구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도시행정에 연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학제간 연구가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학술 활동은 공통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과학문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연구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지역학이 순수 분과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기보다는 영속적인, 그리고 문제해결적이기 보다는 인식론적 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때, 지역학의 학문적 기반 마련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지역연구자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 분과학문의 학자로서 그 분과학문 내의 어떤 이론의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의 적용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이론의 함의를 풍부히 해주는 역할과 지역전문가로서 어떤 지역 또는 국가를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주제라면 자신의 분과학문 범위 밖의 주제라도 선택하여, 그 지역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는 역할이다. 이러한 '이중소속성'이 학문 분야간의 교류를 증대시켜 줄 것이며, 지역연구자의 역할을 풍부히 해줄 것이다. 보편적 이론을 지역별 연구로 분해하여 그 이론의 의미를 풍부히 하며, 또한 특수성 있는 연구들을 통합하여 일반이론화해 나가는 이러한 이중적 작업이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는 개인 지역연구자의 자세인 것이다.

5. 결 론

우리에게 지역연구는 미완성의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각 학과에서 비교론의 입장에서 여러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측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나, 주로 이론 검증을 위한 사례로 이용되거나, 또는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나마도 제한된 교수 인력으로 하여 몇 개 주요 지역 또는 국가에 집중되었다. 국제화와 세계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으로 하여 막대한 재정 지원이 지역연구에 이루어지게 되어 지역연구가 본격화하게 된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연구가 지향해야 할 목적,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학문적 기반과 접근 방식에 관한 해답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그것들의 이론적인, 또는 현실적인 제 측면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선진국의 지역연구가 국익 극대화의 필요성에서 활성화되었

듯이 다중심화하는 국제 사회 속에서 아직도 한반도는 구냉전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 및 경제강국으로의 부상, 일본의 정상국가화(正常國家化) 노력, 미국의 이 지역 이익의 고수 자세와 러시아의 복귀 노력 등으로 신냉전의 논리도 잉태되고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환경과 무한경쟁의 국제경제 환경을 감안할 때, 환경 변화의 전략적 대응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지역연구가 새로운 세계인식의 패러다임으로서 독자적인 순수학문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주장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국익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메타국가주의, 메타이데올로기, 메타발전주의, 메타서구주의라는 '메타 상황'이 중복하여 현상화된 오늘날, 지역연구의 정신도 그 나름되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소한 정책지향적이 아닌 순수학문 지향적인 연구도 발전되고 축적되어야 적실성있는 정책지향적 연구도 발전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본질적인 문제인 지역 구분에 관한 연구와 지역연구의 이론적 기반과 방법론, 그리고 접근법의 확립에 관한 연구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과학문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특수성을 지향하는 연구는 일반이론으로 집약되고, 일반이론은 개별의 특수성에 의해 재해석되는 순환구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9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이 배출하고자 하는 지역전문가가 어떠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느냐의 문제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전문가의 기본 소양으로 강조해 오던 언어능력, 현지 경험과 감각과 각 분과학문, 특히 사회과학의 전문적 지식(이론과 방법론)을 통합하여 얻어 지는 실제적 지식이 이들의 기본적 소양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문가는 통상과 외교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빈부격차 등 규범적 문제에도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구와 교육에서 소홀히 될 수 없는 몇가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 지역에 대한 지식의 획득은 우리 자신의 연구뿐만 아니라 대상국 자체의 기여에도 상당히 의존한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국과의 공동연구, 공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등 국제협력의 활성화는 지역연구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둘째, 사실적 지식과 분과학문의 일반적 분석들의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대상국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언어 능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할 점이 지역정보체계이다. 9개 국제전문인력 특성화 대학원은 각기 각종 지역연구 관료 자료의 구입과 인터넷을 통한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며, 정보체계에 대한 전문 인력 충원에 인색함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지역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다. 각 지역 및 국가별로 각종 통계, 법과 제도 변화, 학술지 논문, 신문 및 일반 잡지의 각종 기사 등을 신속하고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고는 지역연구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 9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이라도 지역정보화에 대한 공동투자와 공동연구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정보화에도

대상국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므로 이 문제에 관한 공동 노력도 이 조직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셋째, 9개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원 중 현재 지역학과를 두고 있지 않는 2개 대학원을 제외한 7개 대학원의 각 지역별 전공을 보면, <표5>에서 보듯이 상당히 중복적이다. 제한된 교수 인력과 재원을 고려해 볼 때 대학별로 지역을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표 5>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대학원의 지역별 전공 설치수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북미)	유럽	러시아, 동구	아태 (아호)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설치 대학수	6	5	3	5	2	4	1	1	4

넷째, 9개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들이 대부분 사전에 큰 준비 없이 지역전문가 양성을 시작하였으며, 인문사회분야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애초의 계획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6>에서 보듯이 1차년도인 1996년의 경우 예산 집행이 평균적으로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을 각 년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6> 9개 국제전문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원의 1996년 세입·세출 결산

	세 입		세 출		잔 액 (A-B)	B/A(%)
	예 산	결 산(A)	예 산	결 산(B)		
고 려 대	3,577	3,697	3,577	1,493	2,204	40.4
서 울 대	3,666	3,902	3,666	1,047	2,855	26.8
연 세 대	6,400	6,557	6,400	2,686	3,871	41.0
이 화 여 대	7,820	8,006	7,820	7,079	927	88.4
한 국 의 대	11,682	14,183	11,682	7,454	6,729	52.5
경 희 대	2,230	2,112	2,230	605	1,507	28.6
서 강 대	3,207	2,947	3,207	1,242	1,705	42.1
중 앙 대	3,242	2,980	3,242	2,836	144	95.2
한 양 대	3,739	3,739	3,739	2,581	1,158	69.0
합 계	45,563	48,123	45,563	27,023	21,100	평균 53.7

출처: 교육부 자료 (세출결산액은 지출액 기준임, 현물은 제외됨)

다섯째,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에 있어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에 대한 계속적이고도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Bird등의 연구는 이 문제에 관해 상당히 시사적이다. 이들은 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의 제 측면에 관한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 또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 현지의 환경에 적절한 행태에 관련된 속성적 지식(attribitional knowledge) 등 세가지 유형이 피교육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피교육생들의 동기부여가 교육 효과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결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矢野暢, “지역연구란 무엇인가?” 『지역연구의 방법』, 矢野暢 엮음,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옮김, 서울: 전예원, 1997, pp. 19-41.
- 坪内良博, “전문분야와 지역연구” 『지역연구의 방법』, 矢野暢 엮음,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옮김, 서울: 전예원, 1997, pp. 71-94.
- Bates, Robert H. “Area Studies and the Discipline: A Useful Controversy”,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June 1997, pp. 166-169.
- Bird, Alan, Susan Heinbuch, and Roger Dunbar, “A Conceptual Model of the Effects of Area Studies Training Programs and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the Model’s Hypothesize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17, 1993, pp. 415-435.
- Bunce, Valerie, “Should Transitologists Be Grounded?”, *Slavic Review*, Vol. 54 No. 1 Spring 1995, pp. 111-127.
- Colson, Elizabeth, *Tradition and Contract*, Chicago: Adline, 1974.
- Kerr, Clark, “International Learning and National Purposes in Higher Educ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5 No. 1, September/ October, 1991, pp. 17-42.
- King, Charles, “Post-Sovietology: Area Studies or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Affairs*, Vol. 70 No. 2, 1994, pp. 291-297.
- Lambert, Richard D. “Blurring the Disciplinary Boundaries: A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3, No. 6, July/August, 1990, pp. 712-732.
- Schmitter Philippe C. and Terry Lynn Karl, “The Conceptual Travels of Transitologists and Consolidologists: How Far to the East and Should They Attempt to Go?”, *Slavic Review*, Vol. 53 No. 1 Spring 1994, pp. 173-185.
- Smesner, Neil J. “Internationalization of Social Science Knowledg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5 No. 1, September/October, 1991, pp. 65-91.